

전북 건설인 한자리에... 소통·협력으로 도약 다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신년인사회 갖고 올바른 건설 문화 정착·지역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 뜻 밝혀

전북 지역 건설인들이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여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한 도약을 다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12일 오전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안호영·이원택·박희승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유희대 완주군수 등 주요 인사와 건설 관련 기관·단체장, 원로 건설인과 회원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소재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협회는 정부와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낙찰률과 일반관리비율을 상향, 공사비 보정기준 현실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경영 여건이 쉽지 않지만, 주마가편의 자세로 혁신을 이어가야 한다"며 "신규 물량 창출과 적정 공사비 확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건설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12일 오전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특히 품질 확보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올바른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에서 "희망의 새해를 맞아 도민과 뜻을 함께하는 여민우의 자세로, 건설업계가 지역사회의 소통·협력하며 활기찬 전북 건

설 산업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협회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도지사 표창은 (유)플러스건설 나춘균 대표 등 13명이 받았으며,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진강건설(주) 김학범 대표 등 9명은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또 협회 발전에

헌신한 (유)그랜드종합건설 박정순 대표 등 3명에게는 대한건설협회장 감사패가 전달됐다.

아울러 전북연구원 김상엽 선임연구위원은 「전북 광역 교통 이슈 및 연계 방안」을 주제로 이슈 브리핑을 진행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용산역 전북 비즈니스라운지 성과

'이용객 증가·높은 만족도' 수도권 비즈니스 거점 자리매김

서울 용산역에 마련된 전북 비즈니스라운지가 전북 기업들의 수도권 비즈니스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 운영 중인 용산역 전북 비즈니스라운지가 이용객 증가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용산역 4층에 위치한 비즈니스라운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3개 지자체와 전주·익산·군산·김제 등 10개 상공회의소가 함께 운영하는 공간으로, 호남권 기업들의 수도권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5년 기준 전북권 이용객은 7,444명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했으며, 회의실 이용 횟수도 631회로 18.2% 늘어났다. 이는 광주·전남을 포함한 3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북특별자치



도가 운영에 참여한 2018년 이후 전북권 누적 이용객은 3만1,077명에 달해 수도권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활동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용객 만족도도 매우 높다. 지난해 9월 이용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7.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한편, 용산역 전북 비즈니스라운지는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한 회의실과 사무·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북 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및 예약 문의는 전화(02-796-0007)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5곳 중 4곳 "외국인 고용 이유는 인건비 아닌 인력난"

94% "숙련도 위해 최소 3년 이상 근무 필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심각한 내국인 인력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구인난'을 꼽

은 기업이 82.6%에 달한 반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든 기업은 13.4%에 그쳤다. 이는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국인의 산업현장 취업 기피 현상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취업 기피를 꼽은 비율'은 2023년 89.8%에서 2025년 92.9%까지 상승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도 적

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급여와 산업수당, 부대비용을 포함해 253만 원 수준이며, 숙식비까지 포함할 경우 292만 원에 달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산업수당은 감소해, 중소 제조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흐름도 확인됐다. 이 같은 비용 부담으로 응답 기업의 97.8%는 외국인 근로자를 법정 고용 한도보다 적게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형성과 관련

해 기업들의 공감대도 뚜렷했다.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의 66.8%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라 97.1%의 기업이 숙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평균적으로 필요한 숙수 기간은 3.4개월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의 94%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은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장기 근속이 숙련도 향상과 생산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현장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다. /오상근 기자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 15일 개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026년 핵심 지원정책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종합 설명회가 전주에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이하 전북중기청)은 오는 15일 전북중기청 4층 대강당에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중소기업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해 기관별 지원사업을 설명한다. 현장에서는 기업별 상황에 맞춤형 1대1 상담도 진행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지방조달청이 함께 참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각종 제도도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전북중기청은 정책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도 확대 운영한다. 오는 2월 말까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부안, 진안 등 도내 9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설명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언제든 지원 사업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 수출, 소상공인, 창업, 연구개발(R&D) 등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중소기업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2026년 지원사업 안내책자와 분야별 설명자료도 전북중기청 누리집과 기업마당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관원,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 변경신고 접수

재배 작물이 바뀐 농업경영체는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각종 농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이하 전북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가 농업·농촌 관련 용자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재배 품목이나 농지 내용이 바뀐 경우

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재배 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공익직불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에 활용되는 핵심 자료다. 등록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변경 신고는 재배 품목이 달라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가능하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청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관원, 야간 막걸리 전문점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이하 전북농관원)은 전주 막걸리 품목을 포함한 야간 막걸리 전문점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주 지역 막걸리 전문 음식점 등 총 75개소로, 원산지 표시가 소홀해지기 쉬운 야간 영업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전북농관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농관원은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 취약 업종을 선정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분기에는 막걸리 전문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이어 2분기에는 고향·막창, 3분기에는 족발·보쌈, 4분기에는 호프집과 샤브샤브 음식점이 점검 대상이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